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문제은행 도입을 위한 문항 일반 정보 구축 방안 연구*

김지영 · 김정숙 · 이정희 · 정명숙**

Abstract

Kim Jiyoung, Kim Chung suk, Lee Junghee & Jung Myungsook. 2014. 2. 28. **A Study on Constructing General Information on Item to Introduce an Item Banking System for Korean Proficiency Test.** *Bilingual Research* 54, 75-98. As the number of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akers has been soaring, the test location and date is going to be added, which is supposed to cause some difficulties in administering TOPIK such as writing items, executing, scoring. It is necessary for the existing paper-based TOPIK to change into a computer-based one or internet-based one with an item banking system. This study presents how to specify the general information on item which is the fundamental material to introduce an item banking system for Korean proficiency test such as TOPIK. That is, out of information constructing metadata of items of the banking system, the general information on item is developed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First, 22 factors of general information on item are selected including 'information process, assessment objective, discourse type, discourse function, and direction type.' Next, analyzing the items in the previous TOPIK, the detailed item information is rearranged according to the specified factors. Then, reviewing those detailed item information it was reclassified and added with the information left ou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ed factors to fit introducing an item banking system. The general information on item in each section of reading, listening, and writing of Korean proficiency test is presented in detail.(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 이 연구는 김정숙 외(2013)에 의해 수행된, 2013년 국립국제교육원 연구과제 (11-1342090-000003-01)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

** 김지영: 제1저자, 김정숙, 이정희: 공동저자, 정명숙: 교신저자

Kyung Hee Universit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한국어 평가(Korean Language Assessment), 숙달도 평가(Proficiency Test), 문제은행(Item Bank), 메타데이터(Metadata), 문항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 on Item),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1. 서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응시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험 시행 지역과 횟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1997년에 1개 지역에서 연 1회 시행되었던 시험이 2013년에는 61개국 192개 지역에서 연 4회로 치러졌으며, 2014년부터는 연 5회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어능력시험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관리 등 실제 시험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재의 PBT 방식의 한국어 숙달도 시험을 CBT 혹은 IBT 기반의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TOPIK 시행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TOPIK의 문제은행화를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김정숙 외(2011)의 ‘한국어능력시험 체제 개선 연구’를 시작으로 허용 외(2012)의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험 체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조항록 외(2013)의 ‘한국어능력시험 체제개편에 따른 문항 틀 제작 및 표준문항 개발연구’, 김정숙 외(2013)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은행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가 그 예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능력 시험의 확대 시행은 불가피하다. 한국어능력시험과 같은 한국어 숙달도 시험을 문제은행 시스템화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험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시험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문제은행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량으로 개발된 문항들 중에서 평가 목표에 맞는 문항 세트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항을 출제하는 단계에서 문제은행 시스템의 문항 세트 구성을 염두에 둔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출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문항의 정보 요소를 무엇으로 설정할지, 각각의 요소별로 세부 문항 정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들이 축적되고 이것이 문제은행 시스템에 의해 균형 잡힌 문항 세트로 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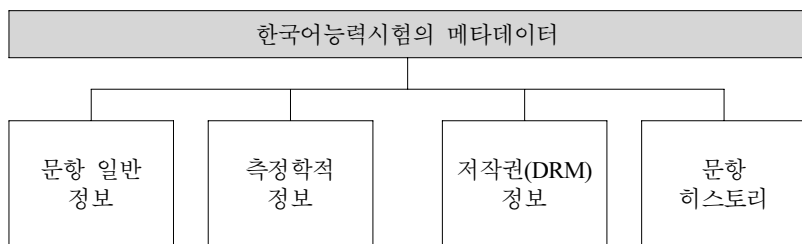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숙달도 시험의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기본 재료가 되는 문항의 일반 정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OPIK 기출 문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은행으로 치러지는 여타의 외국어 시험의 문항 정보와 외국어 평가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문제은행 도입을 위한 문항 일반 정보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제은행 시스템과 문항 정보

문제은행이란 다수의 문항들을 문항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저장, 관리, 활용하는 컴퓨터 체계를 의미한다. 이때 문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문항 정보와 함께 문항은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 목표에 부합하는 시험 문항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제은행 시스템에서는 문항을 출제하는 단계에서부터 개별 문항들을 어떤 특성을 가진 문항들로 개발할 것인지, 이 문항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할 것인지,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내릴 것인지 등 문제은행 시스템에서 각 문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정보에 대한 정보, 즉 메타데이터인데, 김정숙 외(2013)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메타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1> 한국어능력시험의 문제은행 메타데이터 구성¹⁾

<그림 1>에서 제시한 4가지 범주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문항의 출제 계획을 담은 ‘문항 일반 정보’가 될 것이다. 컴퓨터에 의해 문항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목표나 평가 요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문항이 다른 문항과 변별되는 변인들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문항의 변인 요소를 상세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문제은행 설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김정숙 외(2013)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문제은행 도입을 위해 메타데이터의 구성, 그 중에서도 문항 일반 정보에 포함될 정보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상세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김정숙 외(2013)에서는 문항 일반 정보를 구성하는 정보 요소를, TOEFL을 비롯한 여러

1) 측정학적 정보에는 각 문항에 대한 수험자의 반응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예상 정답률, 예상 난이도와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작권 정보는 말 그대로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 즉 문항에 활용된 텍스트의 출처, 저자, 출판 정보 등을 포함한다. 문항 히스토리 정보는 문항의 개발과 사용 등 문항의 생애 주기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작 시기, 수정 시기, 사용 횟수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어 시험의 문항 구성을 참고하고, 국가영어능력시험의 메타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출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 간 평가 내용을 변별하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문항 출제 및 선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항 정보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1>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은행의 문항 일반 정보 구성 요소

	문항 정보 요소	내용	영역 국한
1	정보 처리	평가하고자 하는 정보 처리 특성(사실적, 추론적)	
2	평가 목표	문항의 평가 목표가 되는 세부 언어 기술	
3	지시문 유형	지시문에서 제시하는 발문의 유형	
4	담화 소재	문항에서 제시하거나 응시자가 작성할 담화 및 텍스트의 소재	
5	담화 목적	담화 참여자가 담화를 시작한 목적	듣기
6	담화 기능	제시된 담화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기능	듣기
7	텍스트 장르	문어 텍스트의 갈래	읽기·쓰기
8	담화·텍스트 유형	문항에서 제시하는 담화 및 텍스트의 형식적 유형	
9	담화 공식성	담화가 발생한 맥락이 갖는 공식성의 수준	듣기
10	담화 상황	제시된 담화가 발생하는 시공간 등의 물리적 상황	듣기
11	구어 유형	제시된 구어 담화의 유형(대화, 독백)	듣기
12	채널	제시된 구어 담화가 소통되는 물리적 환경	듣기
13	참여자 관계	제시된 담화 참여자의 친소 관계	듣기
14	담화·텍스트 길이	제시되는 텍스트 길이와 학습자들이 산출해야 하는 답지의 길이	
15	말차례 횟수	담화 참여자가 몇 차례의 말차례를 가지는지	듣기
16	반응 요구 문장의 형식	‘이러길 반응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의 반응을 유도하는 마지막 화자의 문장 형식	듣기
17	선택지 유형	선택지가 제시되는 방식(문자, 그림, 도표 등).	
18	문항 수	세트 문항의 경우 문항 수	
19	문항 난이도	문항의 난이도(등급)	
20	예상 풀이 시간	한 문제를 풀이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런데 위의 <표 1>에서 제시한 정보 요소 중에서 ‘7. 텍스트 장르’는 문어 텍스트의 갈래를 의미하는데, 텍스트 장르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텍스트의 의사소통 기능이기 때문에 ‘6. 담화 기능’과 마찬가지로 ‘7. 텍스트 장르’를 ‘텍스트 기능’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13. 참여자 관계’는 담화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 존대법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한 정보 요소인데, 존대법을 포함한 말씨를 결정하는 변인으로 사회언어학에서는 힘(Power)과 유대감(Solidarity)를 설정한다. 이에 ‘13. 참여자 관계’를 ‘참여자 친숙도’와 ‘참여자 상하 관계’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문항별로 배점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점수’를 추가하여 본고에서는 모두 22개의 문항 정보 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22개 구성 요소에 대해 기존 TOPIK의 문항을 분석하여 각 문항 정보 요소별로 어떤 세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지 분석하게 될 것이다.²⁾ TOPIK의 문항 분석을 통해 추출한 세부 정보들은 문체은행 시스템에서의 출제의 용이성, 관리의 효율성, 측정학적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여 문항 정보 요소의 하위 정보들을 보다 체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쓰기 문항 일반 정보

쓰기 영역의 문항을 보면 이들은 모두 ‘평가 목표, 문항 유형, 소재, 텍스트 기능, 텍스트 길이, 난이도, 점수, 예상 풀이시간’이라는 정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정보 요소별로 각각의 문항들이 어떻게 변별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평가 목표, 문항 유형, 소재, 텍스트 기능’의 하위 정보에 대해서만

2) 분석 대상은 제12회부터 제30회까지의 TOPIK 29회분이며,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TOPIK 신규 체제에서는 어휘-문법 영역이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기존 TOPIK의 영역 중 어휘-문법 영역을 제외한 쓰기, 읽기, 듣기의 기술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TOPIK 쓰기 문항의 세부 정보 분석

문항 정보 요소	세부 문항 정보
평가 목표	문장 구성 / 글 완성 / 문장 완성 / 글 구성
문항 유형	제시된 문장이나 대화의 빈칸 채우기 / 주어진 어휘 이용해 쓰기 / 주어진 그림 이용해 쓰기 / 그래프나 광고문 이용해 쓰기 / 주어진 자료 이용해 글 완성하기 / 제시된 내용에 대한 글쓰기
소재	감기 치료 방법 /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것 / 운동 목표 시간 / 떴어 쓰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 / ……
텍스트 기능	정보 / 정서 / 설명 / 논증

먼저 평가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급 모두에 문장 구성, 글 완성, 글 구성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초급의 경우에는 초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장 완성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존 TOPIK에서는 쓰기 평가 목표 관련해서 글 요약의 경우 출제된 적은 없으나 선행 연구 및 외국어 평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문제 은행 개발 과정에서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쓰기의 문항 유형은 위의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시된 자료를 이용한 쓰거나 완성하기 유형의 문제인데, 이들 유형에 대한 명칭이 유사하여 출제자가 문항 간의 차이를 변별해 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시되는 자료의 종류와 이것이 글을 쓰는 데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맥락 이용해 주어진 글의 빈칸 채우기’, ‘주어진 정보 이용해 글 완성하기’, ‘그림이나 어휘 자료 이용해 쓰기’, ‘제시된 글 이해하고 글쓰기’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TOEFL이나 국가영어능력시험에서는 쓰기 문제를 읽기와 통합한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고, 듣기와 통합하여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도록 하는 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서도 이러한 듣기와의

통합 유형의 쓰기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글 이해하고 글쓰기’를 ‘글이나 음성 자료 이해하고 글쓰기’로 명명하고자 한다.

소재의 경우에는 위의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우 세밀하게 소재를 기술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소재의 수는 무한대로 늘어나며, 그 결과 극단적으로는 모든 문항이 각각 다른 ‘소재’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소재’라는 문항 정보는 메타데이터의 구성 요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소재’는 말이나 글의 중심이 되는 문제로 언어 사용자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의 핵심으로서 언어 교육에 있어 소재를 선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요구에 맞고 언어 교수에 필요성이 큰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Richards, 2001).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역시 어떤 내용을 담은 텍스트를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텍스트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소재 범주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어능력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 중에서 김왕규 외(2001)과 이해영 외(2006)에서 밝힌 소재 분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김중섭 외(2011)에서는 소재 정보를 범주의 층위를 달리하여 17개의 대범주와 88개의 세부 소재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김중섭 외(2011)의 소재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TOPIK 기출 문항을 재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16개의 대범주를 설정하였다.

<표 3> 소재의 대범주와 중범주

	대범주	중범주
1	가족	가족 구성원, 가족 소개, 연애, 결혼 등
2	신체와 건강	외모, 신체 증상, 약국, 병원, 질병, 노화, 영양 등
3	과학	인터넷과 통신, 발견, 발명, 신체 등
4	교육	학교, 교육 제도, 유학 등
5	사회	정치, 경제, 시사 문제, 범죄, 사회 복지, 법, 제도, 여론 등

6	쇼핑	구입과 구매, 유행, 패션, 쇼핑 장소 등
7	생활	하루 일과,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
8	일과 직업	진로, 취업, 직장, 승진, 기술, 자기 계발 등
9	취미와 여가	여행, 운동,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미술 감상, 동호회 등
10	휴일	주말, 휴가, 연휴, 방학 등
11	철학	가치관, 윤리, 종교, 삶, 죽음 등
12	교통	길 안내, 교통수단 이용, 운송, 교통수단, 배달, 택배 등
13	자연과 환경	동물, 식물, 날씨, 계절, 환경 오염, 지리, 도시, 시골 등
14	문화	대중문화, 예절, 언어, 역사, 예술(문학, 음악, 미술, 건축 등), 관습 등
15	감정	성격, 이별, 사랑, 기호, 후회, 대인관계, 갈등, 스트레스 등
16	기타	개인에 관한 소개, 관계에 대한 소개, 사물에 대한 이야기 등

한편 쓰기의 텍스트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담화·텍스트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구분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설명, 묘사·서사, 기술, ……」 등의 기존 분류 체계로는 평가 텍스트의 특징을 포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평가 목표를 구현하는 데 지침이 되는 텍스트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파악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TOPIK 기출 문항 분석 결과를 귀납적으로 활용하여 쓰기 및 읽기 영역에 해당하는 문어 텍스트 기능을 정보, 정서, 설명, 논증, 문학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

4.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읽기 문항 일반 정보

읽기 영역의 문항들은 앞서 제시한 22개의 문항 정보 요소 중에서 ‘정보 처리, 평가 목표, 지시문 유형, 소재, 텍스트 기능, 텍스트 유형, 텍스

3) 쓰기는 학습자들이 산출해 내야 하는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쓰기의 텍스트 기능은 문학을 제외한 정보, 정서, 설명, 논증의 4가지가 된다. 한편 듣기 영역에서는 문어의 ‘텍스트 기능’과 유사하게 구어의 ‘담화 기능’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논증’ 대신 ‘주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보, 정서, 설명, 주장’의 4가지 세부 정보를 설정하였다.

트 길이, 선택지 유형, 문항 수, 문항 난이도, 점수, 예상 풀이시간'의 12 가지 정보 요소에 대한 태깅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이 중에서 '정보 처리, 평가 목표, 텍스트 유형, 선택지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 처리는 해당 문항이 어떠한 정보 처리를 요하는지 규명하는 것으로, '사실적 정보 처리', '추론적 정보 처리', '평가적 정보 처리'가 그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평가적 정보 처리는 주로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 처리 방식으로 일반 목적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정보 처리로 포함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 실제로 일반 목적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라 할 수 있는 TOPIK에도 평가적 정보 처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정보 처리'와 '추론적 정보 처리'의 두 가지 하위 정보를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평가 목표는 해당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듣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TOPIK 읽기 문항에 대해 평가 목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16개의 세부 평가 목표를 추출할 수 있었다.

<표 4> TOPIK 읽기 문항의 평가 목표 분석

문항 정보 요소	세부 문항 정보
평가 목표	세부 내용 파악하기 / 중심 생각 파악하기 / 소재 파악하기 / 정보 파악하기 / 읽고 주제 찾기 / 제목 붙이기 / 제목 이해하기 / 글쓴이의 태도, 심정 파악하기 / 읽고 이유, 근거, 목적 파악하기 / 읽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 문장의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 / 글의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 / 순서 파악하기 / 문맥에 알맞은 말 찾기 / 상황이나 맥락을 활용하기 / 글의 유형, 특성 파악하기

그러나 위의 <표 4>에 제시된 세부 평가 목표들을 보면 '제목 붙이기'와 '중심 생각 파악하기'와 같이 변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출제와 관리상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어 읽기 문항의 세부 평가 목표를 재분류하였다. 한편 TOPIK 신규 체제에서 어

휘·문법 영역이 폐지될 예정이며, TOEFL 등 많은 외국어 시험에 읽기 영역에 어휘나 문법을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맥락에 맞는 어휘 및 표현 파악하기’라는 평가 목표를 하나 더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11개의 읽기 문항의 평가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5> 한국어 숙달도 평가 읽기 문항의 세부 평가 목표

문항 정보 요소	세부 문항 정보
평가 목표	소재 파악하기 / 주제 파악하기 / 제목 파악하기 / 세부 정보 파악하기 / 특정 정보 파악하기 / 태도 및 심정 파악하기 / 글의 유형 파악하기 /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 / 맥락 파악하기 / 맥락 추론하기 / 어휘 및 표현 파악하기

다음으로 읽기 문항에 사용된 텍스트의 유형을 분석하여 세부 텍스트 유형의 종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TOPIK 문항 분석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 유형은 ‘생활문, 설명문, 논설문, 기사, 광고문, 그래프, 표지, 픽토그램, 안내문, 편지, 기행문, 감상문, 영수증, 간판, 제품사용설명서, 수필, 소설, 초대장’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텍스트 유형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제품사용설명서’가 ‘설명문’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경우와 같이 텍스트 유형의 층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평가 및 텍스트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이들 연구에서 제안한 텍스트 유형 목록에서 동일한 텍스트가 여러 유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제한된 맥락만 제시되어 제시된 텍스트의 유형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타’ 유형을⁴⁾ 추가로 선정하였다.

4) 초급의 텍스트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유형이 바로 ‘기타’였는데, 이는 초급의 경우 실제적인 텍스트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용 텍스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기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한국어 숙달도 평가 읽기 문항의 세부 텍스트 유형

	텍스트 유형	예
1	픽토그램	안내 픽토그램, 행동 픽토그램 등
2	표·그래프	표, 그래프 등
3	신분증	명함,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4	표지	표지판, 표어, 간판 등
5	상업문	영수증, 메뉴 등
6	게시문·광고문	단전·단수 게시문, 생활 공고문, 동아리 회원 모집 공고문 등
7	안내문	약도, 관광 안내도, 버스·지하철 노선도, 청첩장 등
8	광고문	마트 전단지, 제품 광고문, 기업 광고문 등
9	신문 기사	사건·사고 보도 기사, 인터뷰 기사 등
10	설명서	제품 사용 설명서, 투약 설명서, 요리법·조리법 등
11	설명문	(백과사전) 설명문 등
12	논설문	논설문 등
13	문학	소설, 수필, 시 등
14	기타	한국어 교육용 텍스트 등

읽기 문항의 정보 요소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선택지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인데, 이는 이해 영역에 속하는 듣기와 읽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 요소이다. 선택지 유형이라는 것은 문항의 정답지와 오답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출 문항 분석을 통하여 문자/텍스트 유형과 삽화/그래픽 유형의 두 가지를 일차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항록 외(2013)에서 확인한 개편된 신체제의 한국어능력시험의 선택지에는 도표/도식 유형도⁵⁾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추후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서는 도표/도식을 선택하는 문항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선택지 유형으로 문자/텍스

5) 선택지 유형이 도표/도식이 되면 해당 문항의 평가 목표는 어휘로 파악되는 소재나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표/도식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문항을 출제하게 되면 난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까지 높은 난도의 문항을 푸는 것이 과연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요구할 만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트, 삽화/그래픽, 도표/도식의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5.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듣기 문항 일반 정보

이 장에서는 듣기 영역의 문항들에 대한 문항 일반 정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듣기 영역의 문항들은 앞서 제시한 22개의 문항 정보 요소 중에서 ‘텍스트 기능’을 제외한 21개의 정보 요소에 대한 태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가 목표, 담화 목적, 담화 유형, 담화 상황, 채널, 참여자 친숙도, 참여자 상하 관계’와 같이 구어의 특성을 보여 주는 정보 요소들을 중심으로 상세 문항 정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듣기의 평가 목표를 TOPIK 듣기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15개의 평가 목표로 정리되었다.

<표 7> TOPIK 듣기 문항의 평가 목표 분석

문항 정보 요소	세부 문항 정보
평가 목표	음운 식별하기 / 세부 내용 파악하기 / 중심 생각 파악하기 / 전체 내용 파악하기 / 듣고 화제 찾기 / 제목 붙이기 / 화자의 태도·심정 파악하기 / 듣고 적절한 행동 고르기 /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 / 듣고 이유, 근거, 목적 파악하기 /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 / 대화 장소 찾기 / 대화 상황 파악하기 / 대화 참여자 파악하기 / 담화 유형 파악하기

그러나 위에 제시된 ‘제목 붙이기’나 ‘중심 생각 파악하기’, ‘전체 내용 파악하기’는 쉽게 변별되지 않는데, 이러한 지나친 세분화는 오히려 출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한 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실제 평가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기술은 상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음운 식별하기’는 지금까지 초급에서만 출제되었는데, 조항록 외(2013)에서 제시한 TOPIK 신규 체제에 따른 문항 틀에는 이 문제가 제외되어 있으며, 실제로 다른 외국어 시험에서도 음

운 식별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문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도 이 유형을 생략하였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8개의 듣기 영역의 평가 목표에 관한 세부 정보 범주를 설정하였다.

<표 8> 한국어 숙달도 평가 듣기 문항의 세부 평가 목표

문항 정보 요소	세부 문항 정보
평가 목표	소재 파악하기 / 주제 파악하기 / 중심 생각 파악하기 / 세부 정보 파악하기 / 특정 정보 파악하기 / 태도 및 심정 파악하기 / 맥락 파악하기 / 맥락 추론하기

담화 목적은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출 문항의 담화 목적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정보 교류와 친교의 두 가지로 문항 정보를 상세화하였다. 정보 교류는 정보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와 관련되며, 친교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기출 문항을 분석한 결과 평가 담화에는 제한된 맥락만 제시되는 특성이 있어 해당 담화의 목적이 정보 교류인지 친교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담화의 목적을 정보 교류인지 친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담화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문항 정보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담화 목적은 정보 교류, 친교, 비특정의 세 가지가 된다.

다음으로는 구어의 담화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문어의 경우에는 텍스트 기능이라 하여 ‘정보, 정서, 설명, 논증, 문학’의 5가지를 제안하고, 구어 담화 기능에서는 ‘문학’을 제외하고 ‘정보, 정서, 설명, 주장’의 4가지 하위 기능을 설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듣기는 읽기와 달리 특정 담화 기능을 구현하는 세부 기능 각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말을 고르는 문항이나 개별 담화 참여자의 생각을 고르는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해당 발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이 무엇인지, 즉 발화의 세

부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의 경우에는 담화 기능을 상위 담화 기능과 하위 담화 기능으로 위계화해야 하며, 하위 담화 기능의 목록도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1,247개의 세부 기능과 Van EK(1980)과 Finocchiaro & Brumfit(1983)을 통해 추출한 198개의 기능을 합산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을 통합하고 재분류하여 최종 90개의 기능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김종섭 외(201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문제은행 도입을 위해 세부 담화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항 정보를 90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세분화된 문항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제 문제의 출제나 저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종섭 외(2011)에서 제시한 90개의 담화 기능 목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유사하거나 짝을 이루는 기능은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은 기능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하위 기능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39개 항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9> 한국어 숙달도 평가 듣기 문항의 하위 담화 기능

1	감사하기	21	설득하기 · 호소하기
2	감상하기 · 평가하기 · 논평하기	22	설명하기
3	걱정하기 · 위로하기 · 격려하기	23	소개하기
4	계획 세우기	24	안내하기
5	고민 이야기하기 · 조언 구하기/하기	25	약속하기
6	교환하기 · 환불하기	26	예약하기 · 취소하기
7	구매하기 · 주문하기	27	요청하기 · 거절하기
8	금지하기 · 경고하기 · 주의주기	28	의지 표명하기
9	동의 구하기/하기	29	인사하기
10	명령하기 · 지시하기	30	전망하기 · 예측하기
11	문제 제기하기/해결하기	31	제안하기 · 권유하기 · 거절하기
12	묻고 답하기	32	주장하기

13	반대하기 · 반박하기	33	초대하기
14	변명하기	34	추측하기
15	보고하기 · 전달하기	35	축하하기
16	부정하기 · 정정하기	36	칭찬하기
17	부탁하기 · 부탁 들어주기 · 거절하기	37	허락 구하기/하기 · 거절하기
18	불만 표현하기	38	후회 표현하기
19	비교하기 · 대조하기	39	희망 표현하기
20	사과하기		

<표 9>의 도출 과정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듣기 평가와 관련될 가능성이 없는 ‘메모하기, 요약하기, 재구성하기, 첨가하기, ...’ 등을 삭제하고, 그 내용이 막연했던 ‘심정 토로하기’를 ‘고민 이야기하기’로 수정하였다. 듣기의 주요 기능인 ‘예약하기’가 빠져 있어 추가하면서 짝으로 실현되는 ‘취소하기’와 통합하였다. ‘환불하기’도 추가하여 관련 기능인 ‘교환하기’와 통합하였다. ‘부탁하기’와 ‘거절하기’를 통합하면서 짝이 되는 ‘부탁 들어주기’를 추가하였다. ‘요청하기’, ‘제안하기’에도 짝이 될 수 있는 ‘거절하기’를 추가하였다.

듣기의 하위 담화 기능 항목을 도출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한 방법은 통합이었는데 가령 ‘감상하기’, ‘평가하기’, ‘논평하기’는 목적, 대상, 주체의 태도 등에 따라 그 구분이 가능하고, 이 때문에 출제 가능한 등급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하였다. ‘걱정하기’, ‘위로하기’, ‘격려하기’는 그 성격이 유사하여 각각을 구분하는 것이 출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 판단하여 통합하였다. 그러나 통합한 기능도 목록에 제시하여 출제 및 문항 관리 과정에서 해당 기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듣기 문항의 담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상 대화, 광고, 안내 방송, 대담, 인터뷰, 강연, 강의, 토론, 토의, 뉴스 등이 전형적인 담화 유형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일상 대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텍스트만 들어서는 그것이 강연인지, 강의인지 명확히 구분되

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관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들⁶⁾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12개의 듣기 담화 유형을 설정하였다.

<표 10> 한국어 숙달도 평가 듣기 문항의 세부 담화 유형

	담화 유형	예
1	일상생활 대화	안부, 약속, 부탁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
2	업무적 대화	문의, 예약, 상담 등 업무와 관련된 대화
3	안내 방송	버스·지하철 안내 방송, 상황(미아, 분실물) 안내 방송 등
4	광고 방송	구인·모집 광고, 제품 광고, 기업 광고 등
5	일기예보	일기예보
6	뉴스	사건·사고 뉴스, 기타 뉴스 등
7	교양 정보 프로그램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교양 정보 프로그램 등
8	강연·강의	학술 강연, 교양 강연, 전공 강의 등
9	인터뷰·대담	인터뷰, 대담 등
10	토론	사적 토론, 방송 토론 등
11	식사	축사, 기념사, 신년사 등
12	기타	음성 메시지 등

다음은 담화 상황에 대한 문항 정보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TOPIK 기출 문항을 대상으로 담화 상황을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 담화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였는데,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TOPIK 듣기 영역 문항의 담화 상황 분석

문항 정보 요소	세부 문항 정보
담화 상황	학교, 집, 회사, 식당 커피숍, 여행사, 은행, 약국, 극장, 운동장, 공원, 산, 바다, 공항, 기차역, 버스정류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식당, 기숙사, 길거리, ...

6) 기존의 담화 유형 관련 연구에서는 동일한 항목이 여러 유형 속에 제시되는 문제, 평가 담화 및 평가 텍스트의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는 문제, 지나치게 유형이 세분화되어 문항 출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파악되었다.

	기차역 안내데스크, 기차역 매표소, 기차역 승강장, 기차역 대합실, 기차역 내 커피숍, 기차 안, ...
	학교 식당, 식당-점심 식사, 식당-가족 회식, 식당-학교 동아리 회식, 식당-직장 회식,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담화 상황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모든 담화 상황을 포함할 경우 문체은행의 메타데이터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담화 상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차역의 매표소, 안내 데스크, 승차장, 기차 안, 역내 커피숍 등과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기차역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세분화될 수 있으며, 식당이라는 하나의 공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식사 공간, 동아리 모임 공간, 회사 회식 공간이 되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담화 상황은 장소보다는 의사소통 상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담화 상황을 ‘개인적·일상적 상황, 개인적 업무 처리 상황, 개인적 공동체 상황, 공적 업무 처리 상황, 사회적 공동체 상황’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담화 상황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특정’의 경우를 추가하여 모두 6개의 세부 담화 상황을 설정하고자 한다.

개인적·일상적 상황은 집이나 방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거나 매일 반복적으로 접하는 일상적인 상황이다. 개인적 업무 처리 상황은 가게나 은행, 우체국 등과 같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인데, 비록 담화 참여자 한 사람이 은행이나 우체국 직원과 같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담화 참여자가 고객으로 설정되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개인적 업무 처리 상황으로 설정해야 한다. 개인적 공동체 상황은 동아리나 사적인 모임과 같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거나 유지, 발전되는 상황으로 담화를 통해 ‘우리 동아리는’, ‘이번 동호회 모임에서는’과 같은 표현이 언급되어 그것이 개인적 공동체 상황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개인적·일상적 상황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적 업무 처리 상황은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과 같이 공적인 맥락에서 전문적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으로 담화 참여자 모두가 회사 직원과 같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 상황은 방송 대담이나 연설, 강연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교수와 학생과 같이 담화 참여자 모두가 사회적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듣기 영역의 문항 일반 정보와 관련해서 채널도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 이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에게 전달되는 매개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전화, 방송 매체라는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채널이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분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고에서는 TOPIK 기출 문항 분석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의사소통의 채널을 도출한 후, 일반적인 시험 출제 과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채널을 면대면, (전화) 매체, (매스미디어·구내) 방송 매체의 세 가지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구분 기준은 응시자가 아닌 담화 참여자가 되어야 함을 밝힌다. 예를 들어 교양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시되는 사회자와 경제 전문가의 대담은 담화 참여자인 사회자와 경제 전문가가 면대면 상황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채널은 면대면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해당 대담이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담화 유형을 통해 상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듣기 문항의 정보 중에서 담화 공식성에 관해 살펴보자. 초급 단계의 학습자가 맞닥뜨리는 의사소통 맥락은 주로 개인적이고, 일상적이며, 구체적인 맥락이지만, 중·고급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 맥락은 사회적, 공식적, 격식적, 전문적 맥락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항 정보 요소로서 담화 공식성을 선정하고 그 요소를 상세화하면 중·고급

평가 담화가 사적 담화에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공적 담화가 출제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담화를 사적 담화로, 인터뷰, 대담, 토론, 회사에서의 업무 대화와 같이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공적 담화로 구분하였다.

구어 유형은 구어 담화가 대화 형식인지, 독백 형식인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두 명 이상의 담화 참여자가 의사소통의 주체로서 상호작용적으로 담화를 구성해 나가는 대화와, 한 명의 담화 참여자가 의사소통의 주체로서 일정 시간 동안 긴 발화를 제시하는 독백의 차이를 알고 모든 구어 유형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듣기 평가에서 구어 유형은 중요한 문항 정보 요소가 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분류에서처럼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인 한 사람인지, 두 사람 이상인지의 담화 참여자 수로만 구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담화 참여자 수는 물론 참여자가 의미 구성의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발화를 들려주고 이어질 말을 고르게 하는 문항의 경우, 들려주는 음성은 한 사람의 발화여서 담화 참여자 수만 고려하면 독백으로 분류될 것이나, 해당 문항이 응시자가 고른 답을 통해 담화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응시자는 담화 구성의 주체이자 담화 참여자가 되므로 구어 유형도 대화가 된다. 그리고 중급과 고급 듣기에는 담화 참여자 1에 의한 한두 문장의 짧은 질문이나 맥락 도입이 이루어지고 이어 참여자 2의 긴 발화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참여자 1이 한 발화는 특정 담화 맥락임을 제시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 참여자 2와 함께 담화를 구성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담화는 독백이 된다.

마지막으로 담화 참여자의 친숙도와 담화 참여자의 상하 관계에 관한 세부 문항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정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존댓말의 사용 여부와 말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특정 담화의 특징을 구현하거나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보 요소는 구어 유형이 대화인 경우에만 상세화할 수 있다. 구어 유형이 독백인 경우는 의미 구성의 주체로서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전제되므로, 참여자 친숙도와 참여자 상하 관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참여자 친숙도는 친숙한 관계와 낯선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세계에서 구현되는 특정 담화는 담화 참여자의 관계가 친숙한지, 친숙하지 않은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평가 담화의 경우 제한된 맥락만 제시되는 특성이 있어 담화 참여자의 관계가 친숙한 관계인지, 낯선 관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평가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 관계를 친숙한 관계, 낯선 관계, 비특정의 세 가지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대화 참여자 상하 관계는 우선 평등한 관계와 상하 관계로 구분하도록 한다. 면접관과 지원자, 사회자와 특정 분야 전문가와 같이 담화 참여자 모두가 격식과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평등한 관계로 처리하며, ‘선배’, ‘부장님’, ‘언니’와 같이 호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거나 담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은 반말을 사용하고 한 사람은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언어 요소를 통해 담화 참여자의 관계가 상하 관계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상하 관계로 처리한다.

6. 결론

한국어 학습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 응시하는 학습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확대 시행이 불가피하여, 이를 위해서는 문제은행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숙

달도 평가의 질적 제고와 한국어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문제은행의 도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여러 과제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문항의 일반 정보를 상세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TOEFL,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비롯한 여러 외국어 시험의 문항 구성 내용을 참고하되, 한국어의 특성,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한국어 숙달도 평가인 TOPIK을 대상으로 김정숙 외(2013)에서 제시한 문항 일반 정보의 정보 요소를 수정·보완한 22개의 정보 요소에 대해 각 문항이 다른 문항과 변별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문항 틀은 문제은행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TOPIK 기출 문항 분석 결과 추출한 세부 정보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누락된 세부 정보는 추가하여 각 평가 영역별로 문항 일반 정보를 상세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문항 일반 정보 상세화 방안은 TOPIK을 비롯한 한국어 숙달도 평가의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타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와 향후 개발될 학습 목적별 한국어 평가 및 연령별 한국어 평가 등 여러 가지 한국어 평가의 문항 틀을 개발하는 데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평가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문항 일반 정보를 어떻게 상세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영역으로, 본고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왕규 외(2006).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정숙 외(2011). 『한국어능력시험 체제 개선 연구』. 국립국제교육원.
- 김정숙 외(2013).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은행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발표자료집』. 국립국제교육원.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이혜영 외(2006). 『한국어능력시험 문항 유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문항개발을 위한 지침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항록 외(2013). 『한국어능력시험 체제개편에 따른 문항 틀 제작 및 표준문항 개발연구』. 국립국제교육원.
- 허용 외(2012).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험 체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국립국제 교육원.
- Finocchiaro, M. & Brumfit, C.(1983). *The communicative purpose of a piece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Ek, J. A.(1980). *Threshold level English*, Oxford: Pergamon Press.

김지영(Kim Jiyoung)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전화번호: 010-3713-0096
전자우편: gyoung@korea.ac.kr

김정숙(Kim Chung suk)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전화번호: 02-3290-1977
전자우편: kmjane@korea.ac.kr

이정희(Lee Junghee)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961-0084

98 이중언어학 제54호(2014)

전자우편: iiekor@khu.ac.kr

정명숙(Jung Myungsook)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609-815 부산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화번호: 051-509-5940

전자우편: jms@bufs.ac.kr

접수일자: 2013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4년 1월 22일

게재확정: 2014년 2월 5일